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정치학) 교수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 지 켈링은 1982년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발표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간단한 실험 을 통해 이 이론은 입증됐다. 구석진 골 목에 두 대의 차량을 주차시켰다. 한 대 는 보닛(bonnet)만 열어 둔 채, 다른 한 대는 보닛을 열었으나 앞 유리창이 깨져 있도록 방치했다. 일주일을 관찰한 결 과, 보닛만 열어 둔 차량은 이전과 동일 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앞 유리창이 깨 져 있던 차량은 거의 폐차 직전으로 심하 게 파손되고 훼손되었다.

이 이론이 주는 함의는 얼핏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방치하면 큰 문제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국정 운영

이어진다는 것이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최초의 변화를 야기한 작은 원인을 잡아 낼 경우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 이다. 실제로 1994년 뉴욕시장으로 선 출된 줄리아니는 이 이론을 적용해 지하 철과 거리 곳곳에 그려져 있는 낙서를 지우는 운동을 전개했다. 결과적으로 시 장 취임 2년 만에 중범죄가 50% 정도 줄 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국정 운영 과 접목시킨 주목할 만한 통찰력이 돋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곧 1년 6개 월이 된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 부는 '이게 나라냐?' 외치면서 적폐 청산 을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한 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열정과 도전은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 갤럽 조사 결과, 집권 2년차 2분기 문 대통령의 지지도(60%)는 비 슷한 시기의 노태우(28%), 김영삼 (55%), 김대중(52%), 이명박 (27%), 박근혜(50%)보다 훨씬 높았 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에 도 불구하고 권력의 3대 축인 당·정·청에 서는 그동안 우려할 만한 많은 일들이 발

가령, 통일부는 지난 15일 판문점 남 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 급 회담을 풀(pool) 취재할 예정이었던 탈북자 출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했다. 북 한이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상황의 특수 성과 장소의 제한성을 근거로 조명균 통 일부 장관이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것이 다. 이런 조치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 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는 작년 7 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내 세웠다. 탈북자는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 이고, 탈북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통 일부가 탈북자라는 이유로 특정 기자의 활동을 제약한 건 분명 정의롭지 못한 것

지난 3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 흘에 걸쳐 '대통령 주도 개헌안'을 발표 했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하기도 전 에 청와대가 대통령 주도의 개헌안을 내 놓은 것이 오히려 개헌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개 헌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를 제치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이른바 '청와대 중

심 정치 '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많 았다. 현 정부들어 6명의 장관급 인사들 에 대해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 았지만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청와대의 졸속 인 사 검증에 대해 비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 대 업무추진비를 폭로했지만 민주당은 자료 취득 과정의 불법성에만 집중하면 서 청와대를 방어하는 데 급급했다. 집 권당은 그동안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스 스로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 는 무기력의 극치를 보였다. 대통령 국 정 운영 지지도가 높다고 '이것 하나 정 도는 적당히 넘어가도 괜찮겠지'라고 생 각하면 착각이다.

향후 경제가 어려워지고, 한미 관계가 꼬이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하면 깨 진 유리창의 법칙은 더욱 강력하게 작동 될 것이다. 청와대 중심 정치의 일상화, 여당의 무기력 심화, 언론 자유 제한 등 을 사소한 일로 간주하면 정권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언컨대, 국정 운영엔 무시해도 좋을 만큼 사소한 일이란 없다.

社說

산적한 현안 외면한 채 해외연수 꼭 가야 했나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해외 연수 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원들의 관광성 외유가 논란이 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 은 아니지만 이번엔 그 시기 때문에도 뒷 말이 무성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8명은 어제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체코·헝가리 ·오스트리아 해외 연수에 나섰다. 연수단 에는 민주당 광주시당 간부와 공무원 3 명도 포함됐다. 총 경비는 3200만 원으 로 의원 1인당 250만 원의 혈세가 들어 간다. 해외 연수의 명목은 내년 광주에서 세계수영대회가 열리는 만큼 지난해 열 린 헝가리 부다페스트 수영대회 추진 과 정을 살펴보고 해외 선진 도시 교통 실태 를 둘러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늘 그렇 듯 이번에도 오페라 관람과 트램 체험 등 대부분 관광 일정으로 짜여져 관광성 외 유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영 대회 관계자를 만나고 프라하 교통공사 를 방문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광주 수영

대회와 지하철2호선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관광성 외유도 문제지만 광주시 최대 현안들이 산적한 시기에 나갔다는 점에 서 비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이 출국한 날은 좌초 위기에 놓인 현대차 광주공장 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동분서주하고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위한 표본조사를 마무리하고 시민참여단 구성 을 앞둔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다.

시의원들은 연수 일정이 오래 전에 예 정돼 있었기 때문에 취소나 연기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 이기 어려울 것이다. 의원들의 해외 연 수를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 만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관광성 외유 를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시민들의 혈세로 간다 하지만 연수 목적에 맞고 시기도 적절하다면 누가 이를 반대하겠

농약 중독 피해 농민 한 해 700명이나 된다니

매년 농약 사용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한해 평균 700명가량이 농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 금주 의원(무소속·나주 화순)이 건강보 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적 으로 2만6271명이 농약 중독 등으로 진 료를 받았다. 이 기간 광주에서는 1265 명이, 전남에서는 2564명이 농약에 노출 됐다. 즉, 한 해 평균 광주는 230명, 전남 은 466명이 농약에 중독된 것이다. 시도 별로는 충남이 38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464명, 전북 2638명, 경남 2571 명 순이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광주·전남의 경 우 환자 발생 수가 연도별로 감소세를 보 이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 지역은 2013 년 262명에서 지난해 212명으로 5년 동 안 50명이 줄었으며 전남은 2013년 555 명에서 지난해 400명으로 5년 새 155명 이 감소했다.

사실 농민의 농약 중독 문제는 어제오늘 의 일이 아니다. 여전히 농약으로 인한 피 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상을 농민의 안 전불감증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농촌 에서 제초제・살충제 등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데 비해 독극물 관리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약병의 사용법과 주의사 항 등이 작은 글씨로 표기돼 있다 보니 고 령의 농민들이 적정량을 초과해서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농약은 적은 양이더라도 피해는 치명 적인 만큼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 서 농약 피해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는 관련법 보완과 함께 관리를 대폭 강화 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 농민 단체는 농민을 대상으로 농약의 위험성과 안전 수칙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에도 힘을 기 울여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조진무 피아골 피정집 관장 신부

요즘 산속의 숲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 니다. 아마 단풍으로 물든 나무들을 보 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지리산 10경(景) 중의 하나인 구례군 피아골의 단풍은 다음 주에나 절정에 달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풍나무한 그 루 한 그루도 아름답고 경이롭지만, 계 곡의 골짜기에서 보면 숲 전체의 풍경은 더욱 놀랍습니다. 많은 종류의 나무들 이 각기 자기 색깔을 내면서 서로 조화 를 이루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가 있으 니까요.

혹 단풍 구경 하시러 숲을 찾으시려거 든자그마한 손거울을 하나 가지고 가 보 세요. 그 손거울을 얼굴의 콧등 위에 올 려놓고 하늘을 향한 거울 속을 바라다보 면 파란 하늘과 나무들의 무성한 이파리

숲과 낙엽

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세상은 바로 땅의 지표면에서 기어 다니 며 살아가는 다람쥐나 뱀과 같은 동물들 의 눈에 비친 세상일 것입니다. 또한 손 거울을 얼굴의 눈썹 위에 올려놓고 거울 속을 바라보면 흙이며 자갈 나무와 꽃 들, 계곡의 바위와 흐르는 물 등, 하늘을 나는 매와 같은 날짐승들이 바라보는 세 상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 세상들은 인 간인 우리의 눈높이에서 볼 수 없는 새로 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각 자 속한 처지와 위치에 따라 수없이 다르 게 보입니다.

우리 인간은 숲과 자연을 찾아가면서 숲을 관리 보호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숲과 자연이 우리 인간을 품어 주고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나무와 바위, 하늘과 땅, 계곡과 숲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 인 간의 소유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함 께 상생(相生)하는 관계에 있는 존재라 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숲과 자연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며 소중 한 가치를 경이롭게 만날 수 있을 것입

단풍잎은 70가지가 넘는 색소를 소지 하고 있고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 서 화려한 색채의 변신을 거듭한다고 합 니다. 그리고 단풍잎은 자신의 수명을 다 하면 낙엽이 되어 1g당 4.7kcal의 에너 지를 담고서 가지와 이별합니다. 바람결 에 따라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여정을 통 해 곤충들에게는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거처를 제공하고 계곡이나 개울가로 흘 러가서는 물속의 작은 생명체에게 먹이 가 됩니다. 결국 흙속의 공극(空隙)으로 스며들어 영양분이 되고 다시 나무의 일 부가 되는 생명의 순환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낙엽은 숲의 시작이다'라고 말 하게 된답니다.

가을의 단풍잎은 화려한 색채로 가지 에 매달려 있을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구르는 낙엽이 되어서 그렇게 다시 '숲의 시작'이 되는 것도 아름답습 니다. "한 장의 지폐보다 한 장의 낙엽이 아까울 때가 있다./ ... / 낙엽을 간직하 는 사람은 사랑을 간직한 사람/ 새로운 낙엽을 집을 줄 아는 사람은 기억을 새롭 게 갖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이생진 시인 의 시구처럼, 단풍잎은 사랑과 낭만을 줍

는 기억을 간직하게 만들 때도 아름답습

그래서 낙엽은 죽은 이파리가 아닙니 다.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 다! 여전히 세상에 나누어 주는 것이 많 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무가 더 이상 필 요하지 않은 가지를 스스로 떨어뜨림으 로써 그 다음 해 봄의 새로운 가지를 약 속하듯이, 그렇게 낙엽을 죽은 것으로 보 지 않고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의 순환 혹 은 생명의 일부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요?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답 고 거룩한 것입니다. 낙엽이 된 단풍잎 하나를 주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생 각해 보는 이 가을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1979년에 무슨 일 이 일어났는지를 모두가 아는 그날. 군 부독재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독재자 의 죽음으로 민주주의라는 생명의 씨앗 이 뿌려지고 다시 민주주의를 희망하게 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돌고 돌아 또다시 민주주의 생명을 위협 하는 '사법 농단' 사건 처리를 직면하고 있는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 게 될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이 가을 입니다.

기 卫

기상 정보의 산업적 활용



조양기 서울대 해양학과 교수

지구 온난화의 여파가 심상치 않다. 극 지에 있는 거대 빙산이 떨어져 나가는 장 면을 언론 보도를 통해 자주 목격하게 된 다. 100m 높이의 빙산 일부가 쪼개지는 경우 해일 발생 우려도 있다. 올 여름 기 록적인 폭염을 경험하면서 지구 온난화 에 의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수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다. 전세계에서 발 생하는 태풍의 위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 는 이유도 따뜻해진 대기가 수용할 수 있 는 수증기량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 구 온난화의 원인 물질로 지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대기 농도 증가를 표시해 주는 킬링 곡선(Keeling Curve)은 지 금당장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기상 전 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의 관심 은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강대국의 개발 의지로 인해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국제 협약 이행도 자체 동력 이 약화돼 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 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면서 우리를 자극 해온 기후 변화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피 로감까지 겹쳐 미래 후손에 물려줄 지구

의 모습은 예측이 힘들 정도로 흐릿해지

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인간의 안락함을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화석 연료 의 연소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가 대기 중의 열을 과거보다 더 많이 붙 잡아 두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대 기는 지구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과 끊임없이 열 교환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기의 열이 바닷물의 온도 를 높인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바닷물 의 표층 수온은 최근 30년 동안 최대 3도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구에 바다가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대기의 온도는 훨씬 높아 졌을 것이다. 해양의 열 용량은 대기보다 약 1000배가 크다. 해양은 대기 온도 상승에 완충 작 용을 해줄 뿐 아니라 대기 속에 있는 이 산화탄소를 지속적으로 흡수하여 저장 하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증가 속도 를 완화해 주고 있다. 기후 변화 속도를 낮추는 해양의 역할은 실로 지대하다.

하지만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연 안 생태계 변화는 심각하다. 바다 양식 에서 가장 큰 해양의 물리적 변수는 수온 이다. 겨울철 해조류나 어패류 양식은 연 안 수온이 조금만 올라도 생산에 큰 타격 을 입을 수 있다.

전국 수산물 생산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남서해안의 양식 관계자 들이 매년 해수 온도의 변화에 촉각을 곤 두세우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남 서해안 냉수대의 이상 흐름과 이로 인한 급격한 저수온 또는 고수온 현상은 그 해 양식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바 닷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정보 는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기상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기상 융합 서비스는 수산업의 생산성 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상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완도의 전복 생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광주지방기상청에서 개발한 전복 산업 지원을 위한 해양 기상 융합 서비스 는 전복의 먹이류와 관련된 작업 지수 뿐 만 아니라 바다의 수온, 염분, 유속 등의 예측 정보까지 휴대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상 정보가 단순한 일기 예보에서 산업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의 바탕이 되는 기상 정 보의 정확도 수준은 지금보다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범용성을 바탕으로 다양 한 분야의 수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장형 서비스 개발에는 실제 로 활용되는 업종 관계자들의 경험과 지 식이 수렴되고 반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활용성이 담보되는 맞춤형 정보의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 이다. 날씨나 기후는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 수다. 매일 생산되는 다양한 기상 정보 를 무의미하게 흘러 보낼 것이 아니라 산 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치를 높여야 한 다. 기상 정보의 산업적 활용은 발전 가 능성이 큰 미래의 블루 오션이다.

無等鼓 🥠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기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국책 사업으 로 추진했다. 당시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던 때였는데 기술력이 뒷받침되 면서 인터넷 강국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 가를 받는다. 하지만 기술 진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유독 연예인들의 성생활이 촬영된 비디오가 인터넷에 유 출돼 사회 문제가 됐다. 아쉽게도 그때 국민은 동영상에 호기심을 보였을 뿐, 유

출자를 단죄해야 한다 는 공분에까지는 이르 지 못했다. 단지 남성들

이 비디오를 보기 위해

'동영상 재생에 도사(?)가 됐다'는 우스 갯소리만 나돌았다. 당시 연예인 성 관련 영상은 피해자의 연예계 생활을 접게 만 드는 폭로 성격이 짙었다. 요즘엔 이를

리벤지 (revenge:복수, 보복)라는 단어 를 사용해서 '리벤지 포르노' (revenge porno)고들 하는 모양인데, 결별하는 연인에게 앙심을 품은 데 초점을 맞춘 용 어라 할 것이다.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 씨와 전 남자 친구의 쌍방 폭행 사건이 '리벤지 포르노'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남자 친

光则日報

구 A 씨가 구 씨에게 두 사람의 사생활 이 담긴 영상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이 를 성폭력 혐의로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 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 시판에는 '리벤지 포르노 사범을 강력 처 벌 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10만 명이 동 의했다.

최근에는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이혼 절차 중인 남편으로부터 동영상 공개 협 박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리벤지 포르노'는 비뚤어진 우리 사회 리벤지 포르노

의 민낯을 드러낸다. 성 관계 영상이 유출되면 어김없이 작동하는 집 단 관음증이 피해자의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퇴행적인 구조. 사 실 유출된 문제의 영상을 아무도 클릭하 지 않는다면 '리벤지'도 성립할 수 없다. 혹시 나는 관음증의 예외라고 생각하시 는 분들이 계시다면 감수성을 테스트해 보시길 권한다.

연예인의 집이나 방 구석구석에 카메 라를 설치해 놓고 그들의 사생활을 비 추는 TV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면 관음증의 초기 단계일 수도 있으니 말 이다.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 X 222-0195) 과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치 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 남 본 부 220-0642 육 부 220-0697 ※구독료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2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